

단풍 짙을수록 경기 약세

1. 머리말

가을이 깊어간다. 들녘도, 산천도 모두가 붉게 물든 단풍과 열매의 풍성함을 과시하는 듯하다. 싸늘한 악몽을 다시금 회상해 보게 된다. 가는 청춘, 오는 백발을 막을 수 없듯이 계절의 변화 앞에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오늘도 단풍은 짙어만 가다가 보다.

'94 전국 양돈인대회는 금년에도 여의도에서 11월 11일에 거행키로 하였고 그에 따라 집행부의 일손은 더욱 바쁘게 되었으니 전국의 양돈인들이 상황을 이루고 대외에 우리의 결집된 모양새를 보여 주는데 솔선수범 할 것으로 믿는다.

10월 11일 양돈회관에서 개최된 임원·지부장 회의에서는 95년도의 회비부과 기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내용의 핵심은 두수보고의 허점을 보완하여 항상 문제가 되곤 했던 대표성을 과시하자는데 있다 하겠다.

1천두까지는 자조금을 2만원으로 하고, 5천두까지는 10만원으로, 5천1두 이상은 35만원으로 하였으며, 회비는 회원 공히 7만원으로 통일하였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회원들께서는 95년도 회비 부과와 두수보고에 이런 점을 유념하여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 100두나, 1,000두나 종합 부과금은 9만원(회비 7만원+자조금 2만원)인 것이다.

2. 통계수치 모두 늘고 있다.

9월의 두수 통계는 6백만두가 넘어섰으니(6,068천두) 이는 지난 6월 5백80만두에 비하여 5% 정도 증가한 셈이다. 사료 생산량(9월분)도 39만톤을 상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니 이 또한 지난 8월(36만톤)에 비하여 8% 정도 늘어난 것이다. 사료생산량의 증가는 혹서기가 지남에 의한 식욕증진이라고 쉽게 이해가 되겠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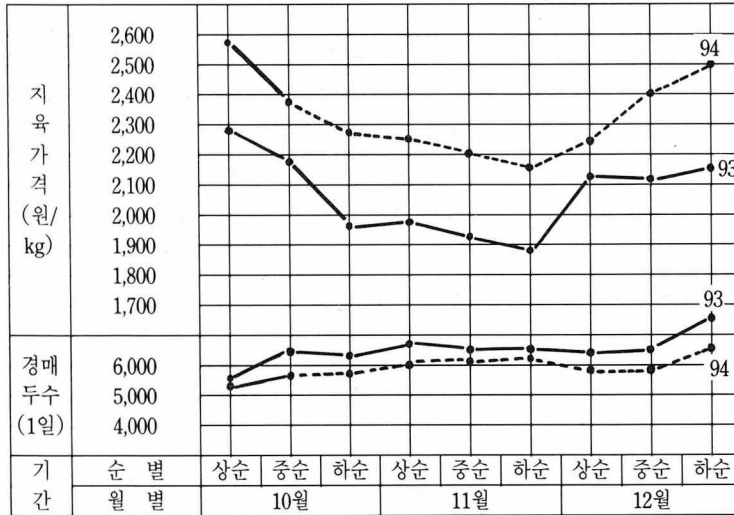
정 호 풍
(본회 지도부장)

〈표 1〉 돼지 사육두수 동향

구 분	두 수 (천두)			증감률(%)	
	'94/9(A)	'94/6(B)	'93/9(C)	A/B	A/C
총 계	6,068	5,783	5,998	(+)4.9	(+)1.2
2개월 미만	1,878	1,782	1,879	(+)5.4	0
2~4	2,077	1,985	2,040	(+)4.6	(+)1.8
4~6	1,282	1,194	1,231	(+)7.3	(+)4.1
6~8	72	71	80	(+)1.4	(+)11.3
씨돼지(♀, ♂)	759	751	767	(+)1.1	(-)1.1

〈표 2〉 경매두수 및 가격 동향

(서울 3개 도매시장 기준)



나 두수의 증가는 지난 하절기의 임신돈 사고로 미뤄볼 때 조금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체급별 분포 상황은 〈표 1〉을 참조 바란다.

3. 매물은 늘어나고 소비는 침체

11월의 출하물량은 봄기운 따라 임신되고 화창한 초여름

에 낳은 것들이니 자연히 폐돈도 줄어들게 마련이어서 물량 증가에 의한 시세 하락은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워낙 호조를 보이던 양돈경기의 끝이라 크게 내리지는 않는 상태로 진행되지만, 단풍이 짙어지는 11월 중하순은 보다 더 내림세로 형성될 것이라 전망하게 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

난 여름철에 폭등세로 인하여 물가 당국이 신경을 많이 쓴 터라 지난 번에도 추가로 4천톤 발주했던 것이니 그리하고도 마음이 안놓이는지 수급대책 회의를 하자고 한다.

4. 돈가 한동안 약세 예상

물가의 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찬바람 나고 단풍철이면 향락객도 많겠으나 여름철 같이 삼겹살을 먹어 주는게 아니고 산에서 불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준비하는 경향이 많은 모양이다.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시세가 계속 하락되는 것은 소비가 그만큼 둔화된다는 증거가 되는 것으로 보아진다. 단풍철이 끝나고 연말에 눈발이나 내릴 때 실내에서 소주잔에 삼겹살이 다시금 인기를 모으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당분간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연말까지의 시세전망 도표(〈표 2〉)를 제시하니 참고 바란다.